

학령기 아동의 언어 및 조망수용능력과 중의적 관용어 이해 간 관계

김 주 영[†]
(동명대학교)

Relationship of the Ambiguous Idiom Comprehension between Language Ability and Perspective-taking Ability in School-aged Children

Ju-Young KIM[†]
(Tongmyo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across children's grades in the ambiguous idiom comprehension, the relation with the ambiguous idiom comprehension and language, perspective-taking ability, and what the factors which can influence to comprehend the ambiguous idioms is. 70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1st grade to 6th grad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classified with 3 groups, A(1st-2nd grade), B(3rd-4th), C(5th-6th) group and tested in the ambiguous idiom comprehension, receptive vocabulary, problem-solving and perspective-taking.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ed.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ree groups in the ambiguous idiom comprehension task.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 group and B, C but not between B and C. Second, in relation with the ambiguous idiom and language ability, perspective-taking ability, there was positive relation with the ambiguous idiom comprehension and them. Finally, the factors which can influence to comprehend the ambiguous idioms is the receptive vocabulary ability, cue-assumption and resolution-inference ability in problem-solving. And the 3 factors explain 65.3% of ambiguous idiom comprehension ability.

Key words : Ambiguous idiom comprehension, Perspective-taking, Language ability

I. 서론

많은 수의 사람들이 타인과 의사소통하면서 자신의 의도나 감정을 구어나 문어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해 안타까워한 경험이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문자적 의미만으로는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지 못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유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비유적 표현은 문자적 표현보다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의사소통에서 아주 효율적이다(Kwon & Hong, 2012). 이러한 비유언어 중 관용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999)

[†] Corresponding author : 010-2578-2746, slp76@nate.com

로, 복잡한 의미를 보다 간결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나타냄으로써 의사소통을 보다 풍부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관용어는 어떤 상황이나 구체적 행위를 비유 및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생성된 것도 있으며, 의미의 유추에 의해 축자 의미와 관용 의미를 연결시킴으로써 생성되기도 한다(Moon, 2003). 후자의 형태를 중의적 관용어라 칭하며, 중의적 관용어는 구성 단어가 가진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닌 제 3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문법적으로 분석하거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듯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관용어는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이해하는 능력이 점차 발달하는데(Nippold & Taylor, 2002), 7세 이전의 아동은 관용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Ioannis & Olga, 2011) 7세 이전에는 관용어 이해가 어렵다고 보고된다. 대개 어린 아동들은 관용어를 주변 환경에서 언어적으로 노출되기는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교과과정에서 관용어를 학습하게 된다(Han, 2004). 따라서 관용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은 주로 학령기에 발달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령전기부터 학령기에 걸쳐 발달되는 관용어는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동이 관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용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1차적 의미만을 안다고 해서 관용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제와 대화 상대 및 상황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Lee & Park, 2010), 또한 관용어 이해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관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를 의미론적으로 분석하고, 문맥으로부터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Cain, Towes, & Knight, 2009). Levorato & Cacciari (1999)는 화자의 의도를 찾고, 관용어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 문맥으로부터 추론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맥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관용어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하다(Cain & Towse, 2008; Cain et al., 2009). 종합해보면, 아동이 문맥에서 사용된 관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화자의 의도나 감정을 관용어가 사용된 맥락과 연결하는 추론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닌 제 3의 의미를 지닌 중의적 관용어는 연령이 낮거나 추론 및 타인의 의도나 감정 이해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는 습득이 어려울 수 있다. 요약하면, 관용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에 대한 의미론적 지식 뿐 아니라 화용론적 지식이 고려되어야 하며, 문법적으로 해석될 수 없고, 그 의미는 맥락에서 추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관용어 이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조망수용능력을 들 수 있다. 조망수용능력이란 아동이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사고, 느낌, 의도 등을 바르게 지각하고 수용하는 능력으로(Kim & Choi, 1996), Kurdek과 Rogan(1975)는 조망수용능력에 타인의 생각, 태도 의도 등을 추론해 내는 인지적 요소와 그 상황이나 의도, 느낌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함께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 인 요소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관용어에 대한 국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용어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아동의 연령을 제시하고 있으나(Nippold & Duthie, 2003; Levorato & Cacciari, 1995), 국내 연구에서 관용어 이해 능력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Woo 등(2012)의 연구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든 편이다. 그러나 Woo 등 (2012)의 연구는 초등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관용어 이해 차이를 살펴보고, 초등 1-2학년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초등 저학년의 관용어 이해는 어떠한지 살펴볼 수 없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관용어가 학령기에 발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학년별로 관용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보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국내 관용어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 분야에서는 관용어에 대한 개념 및 분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Kang, 1990; Choi, 1992; Moon, 1999). 한편, 언어장애나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특정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Lee et al., 2014; Hyun et al., 2011) 다문화 가정 또는 취약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관용 표현 이해 능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나(Shin & Hong, 2012; Choi & Hong, 2012; Woo et al., 2012; Yeo & Kim, 2013), 일반 학령기 아동의 관용어 발달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장애 아동 또는 취약계층 아동의 관용어 이해를 일반 아동의 관용어 이해와 비교하여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년에 따라 중의적 관용어 이해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관용어 이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어 및 조망수용 능력과 관용어 이해 간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관용어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의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 발달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의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과 의미 및 화용론적 지식, 조망수용 능력 간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일반 초등학교 총 70명으로, 언어발달이 지연되지 않는 아동이다. 이를 위해 언어평가 중 수용어휘력과 언어문제해결력이 평균에 해당하는 아동을 선정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A집단은 1-2학년 32명, B집단은 3-4학년 21명, C집단은 5-6학년 17명으로 구성되었다. 학년별 수용어휘력과 언어문제해결력 표준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아래와

같다(<Table 1> 참조).

<Table 1> Subject information

Group	Grade	N	REVT M(SS)	TOPS M(SS)
A	1	12	.17(1.64)	.25(1.29)
	2	20	.95(1.27)	.70(1.05)
B	3	10	.00(.47)	.00(1.05)
	4	11	.64(1.80)	.45(1.12)
C	5	11	.73(.90)	.18(.75)
	6	6	.33(1.50)	.83(1.16)

* REVT(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 TOPS(Test of Problem Solving)

2. 용어 정의

본 연구의 중의적 관용어란 구성 단어가 가진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닌 제 3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문법적으로 분석하거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관용어를 말한다. 즉,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1차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비유적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의적 관용어인 ‘손이 크다’는 ‘썸썸이가 넉넉하다’는 비유적 의미로 글자 그대로의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면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손의 크기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썸썸이가 넉넉하다는 비유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조사 도구

가. 중의적 관용어 이해 검사

중의적 관용어 이해 검사는 국내 표준화된 검사 도구의 부재로 인해,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Kim, 2012; Woo et al., 2012; Han, 2004) 및 우리말 관용어 사전(Choi, 2014)을 참고하여 중의적 관용어 이해 검사 총 40문항을 1차적으로 제작하였다. 관용어의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 맥락을 사용하는 기술이 급격히 늘어나는 고학년의 경우

관용구의 친숙성은 난이도 결정에 있어 덜 중요하므로(Nippold & Taylor, 2002), 친숙한 관용어로만 구성하였다. 1차적으로 제작된 중의적 관용어 이해 검사에 대해 학령전기 및 학령기 언어발달 전문가인 언어병리학 석사 3인, 박사 2인에게 초등학생 아동에게 적절하고, 친숙한 관용어인지를 5점 척도로 정하게 하였다. 전문가 평가에서 각 문항에 대한 평점 평균 범위는 4.6~2.6, 평균 3.8로 40문항 중 3.5점 이상의 항목 총 30개를 선정하였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중의적 관용어 이해 검사는 국어국문 학사 전공한 10년 이상의 언어치료 경력을 가진 언어병리학 박사 1인, 국어국문 학사 전공한 5년 이상의 언어치료 경력을 지닌 언어병리학 석사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평가자간 내용 타당도는 Cronbach's α =.938로 나타났다.

<Table 2> Example of ambiguous idiom test

Directing sentence : There is a phrase, 'I ate the seaweed on the test today.' The idiomatic expression 'ate seaweed' means 'have failed the test'. Read the underlined idiom in the test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 or √).

<Question> Jin-sung is thin ears, he conforms to believe the words of friends.

- ① His ear is small and thin.
- ② He believes everything he hears.
- ③ He respects the words of friends.
- ④ He run out of pocket money.
- ⑤ There is no answer.

나. 수용어휘력 검사

수용어휘력 검사는 수용·표현어휘력 검사(Kim et al., 2009) 중 수용어휘력 검사만을 사용하였다. 수용어휘력 검사는 만 2세 6개월부터 16세 이상 성인의 어휘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표준화된 검사다. 수용어휘력 검사는 총

17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정반응 1점, 오반응 0점으로 채점되며, 점수의 범위는 0점-175점이다.

다.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Pae et al., 2000)는 만 5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언어화하는 상위 언어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표준화된 검사다. 본 검사는 원인이유, 해결추론, 단서추측의 세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본 검사는 각각 상황이 다른 17장면의 그림판에 질문이 총 50문항으로 문항별로 0, 1, 2점 중 하나로 채점되며, 점수의 범위는 0-100점이다.

라. 조망수용 능력 검사

조망수용 능력 검사는 국내 표준화된 검사 도구의 부재로 인해 Pae(2011) 연구에서 사용된 조망수용능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의도 조망수용, 사고조망수용, 감정조망수용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두 가지 유형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망수용 각 하위영역 별 이야기 내용이 그려진 4장면 그림과 함께 연구자가 구어로 이야기 내용을 들려주고, 이야기 내용을 아동에게 이해시킨 후 질문을 통해 아동의 발화를 녹음하였고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 조망수용 영역별 각 검사는 0-5점으로 채점하며 전체 총점은 30점이다.

<Table 3> Example of perspective-taking test

Thinking Perspective-taking 1 : Chul-su is playing baseball with his friends. The ball he throws broke the neighbor's window so he ran into his home. Someone knocks on the door and Chul-su is crying in his room. Chul-su's mother wonders why he is crying.

<Question 1> Do you understand this short story ?

Then, please retell the story to me.

<Question 2> Why Chul-su is crying?

<Question 3> Why does Chul-su's mother think Chul-su is crying?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주로 아동의 집에서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 아동과 1:1로 독립된 공간에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아동에게 검사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미리 알리고 난 후, 수용어휘력 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조망수용능력검사를 실시할 때는 아동의 발화를 녹음한다는 것을 알리고 동의를 구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의적 관용어 이해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중의적 관용어 이해 문제를 아동 혼자서 풀도록 시간을 할애하였다. 개별 아동에게 실시한 모든 검사의 평균 소요 시간은 60 분이다.

5. 평가자 간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외 10년 이상의 언어치료 경력을 가지고 있고, 1급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재활전문가 1명과 본 연구자가 참여하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및 조망수용능력 검사 채점에 대한 신뢰도를 구하였다. 신뢰도 계산에 사용된 자료는 대상자들에게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채점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94%, 조망수용능력 검사 채점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96%로 나타났다.

6. 자료 처리

집단별 중의적 관용표현 이해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각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 검증인 Schéffe를 사용하였다. 관용표현 이해 능력과 언어능력 및 사회적 조망수용능력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의적 관용표현 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단계별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통계분석패키지인 윈도우용 SPSS 12.0을 사용하였다.

Ⅲ. 조사 결과

1. 집단별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

집단별 중의적 관용어 이해 검사 결과, A집단 평균 점수 14.31(표준편차 8.24), B집단 평균 점수 22.57(표준편차 8.16), C집단 평균 점수 26.24(표준편차 5.67)로 나타나 학년이 높은 집단일수록 평균 점수가 높았다. 또한 중의적 관용어 이해 평가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67)=15.51, p<.001$]. 집단별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One-way ANOVA of ambiguous idiom comprehension in groups

Group	N	M	SD	F
A	32	14.31	8.24	15.51***
B	21	22.57	8.16	
C	17	26.24	5.67	

*** $p<.001$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éffe를 실시한 결과, A집단은 B, C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하지만, B와 C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후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Post-Hoc test results of ambiguous idiom comprehension in groups

Group	A	B	C
A		-8.26*	-11.926*
B			-3.66

* $p<.05$

2.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과 언어 및 조망수용능력 간 관계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과 수용어휘력, 언어 문제해결력(원인이유, 해결추론, 단서추측), 조망 수용능력(의도조망, 사고조망, 감정조망)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은 언어능력 및 조망수용능력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상관계수는 .40~.80사이에 분포하였다. 중의적 관용어 이해 점수와 원인이유, 해결추론, 단서추측, 의도조망, 사고조망, 감정조망 점수 간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다. 중의적 관용어 이해능력과 언어 및 조망수용능력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ambiguous idiom and language abilities, perspective-taking ability

	1	2	3	4	5	6	7
2	.559***						
3	.770***	.668***					
4	.713***	.782***	.735***				
5	.510***	.465***	.524***	.581***			
6	.480***	.495***	.452***	.583***	.575***		
7	.537***	.633***	.513***	.634***	.525***	.620***	
8	.755***	.621***	.733***	.711***	.490***	.515***	.574***

1=Receptive Vocabulary(RV), 2=Cause-Reason(CR), 3=Resolution-Inference(RI), 4=Cue-Assumption(CA), 5= Intentive Perspective-taking(IP), 6=Thinking Perspective-taking(TP), 7=Affective Perspective-taking(AP), 8=Ambiguous Idiom Comprehension(AIC).

3. 중의적 관용어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의적 관용어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모형 1에서는 수용어휘력이 중의적 관용어 이해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7.0%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수용어휘력과 단서추측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63.1%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수용어휘력, 단서추측, 해결추론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5.3%로 나타났다.

<Table 7>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ambiguous idiom comprehension

Model	Factor	B	SE	β	t	F
1	Const ant	-4.33	2.63		-1.65	90.19***
	RV	.22	.022	.76	9.50***	
	R=.755, R ² =.570, Adjusted R ² =.564					
2	Const ant	-4.17	2.46		-1.70	57.33***
	RV	.15	.03	.50	4.77***	
	CA	.57	.17	.35	3.33**	
R=.794, R ² =.631, Adjusted R ² =.620						
3	Const ant	-4.40	2.40		-1.83	41.45***
	RV	.11	.04	.37	3.11**	
	CA	.41	.184	.25	2.25*	
	RI	.31	.154	.25	2.05*	
R=.81, R ² =.653, Adjusted R ² =.637						

* $p < .05$, ** $p < .01$, *** $p < .001$

IV. 논 의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중의적 관용어 이해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언어 능력 및 조망수용 능력과 관용어 이해 간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관용어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집단에 따라 중의적 관용어 이해 정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éffe를 실시한 결과, A집단(1-2학년)은 B(3-4학년), C집단(5-6학년)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그러나 B와 C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중의적 관용어 이해가 초등 1,2학년 때는 미숙하지만, 3,4학년이 되면 문맥을 이용하여 중의적 관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속담 및 관용어와 같은 비유적 표현이 3학년 부터 빈도가 서서히 증가하여 고학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재 초등 교육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 선행연구들은 관용어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연령을 언급하고 있어(Nippold & Duthie, 2003; Nippold & Martin, 1989; Levorato & Cacciari, 1995), 본 연구 결과 역시 연령에 따라 관용어 이해 능력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 측정을 위해 맥락을 이용하였는데, 맥락을 사용하여 관용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이 3학년 이상이 되어야 발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이 되면 관용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맥락을 사용하는 기술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Nippold와 Talyor(2002)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관용어 이해 연구들은 특정 연령 또는 학년을 대상으로 관용어 이해 능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Kim, 2012; Choi & Hong, 2012), 초등 1-2학년 이 제외된 초등 고학년(3-6학년)을 대상으로 한 Woo 등(2012)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과 언어능력(수용어휘력, 언어문제해결력), 조망수용능력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은 언어능력 및 조망수용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으며($p < .05$),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사고, 느낌, 의도 등을 바르게 지각하고 수용하는 조망수용능력 점수가 높은 아동일수록 중의적 관용어를 잘 이해하였다. 특히,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과 언어능력 간 상관 계수는 .60-.80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하고 있는 어휘가 많고 특정 문제상황을 이해하여 해결방법을 추론하고, 특정 단서를 보고 추측할 수 있는 상위언어적 지식이 높은 아동일수록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용어 이해를 위해서는 관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를 의미론적으로 분석하고, 문맥으로부터 추론하는 능력을 포함하며(Cain, Towes, & Knight, 2009), 화자의 의도를 찾고, 관용어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 문맥으로부터 추론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Levorato & Cacciari(1999)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셋째, 중의적 관용어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의적 관용어 이해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모형 1에서는 수용어휘력(57.0%), 모형 2에서는 수용어휘력과 단서추측(63.1%), 모형 3에서는 수용어휘력, 단서추측, 해결추론(65.3%)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중의적 관용어 이해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어적 요인 중 하나가 어휘 이해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용어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표현이므로, 1차적으로 관용구에 나타난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맥을 이용해서 관용어의 의미를 유추 가능한 관용어는 언어지식 즉, 어휘 지식에 의해 예측된다는 Sourn-Bissaoui 외(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중의적 관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용구에 포함된 특정 단어가 문자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야 하므로, 언어의 의미적인 측면인 어휘 이해도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중의적 관용어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서추측과 해결추론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특정 문제 상황에 대한 단서를 보고 사건을 추측하고, 해결방안을 추론해내는 활용론적 지식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 결과는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관용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상위언어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본 결과를 통해 도출해낼 수 있는 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중의적 관용어 지도 시, 사전에 아동의 어휘 이해력 정도와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언어화하는 상위 언어 기술인 단서추측, 해결추론 능력을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언어학습장애 아동이나 읽기 학습부진 아동의 경우, 중의적 관용어 지도 시 관용어 이해에 영향력이 큰 어휘 지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초등 저학년인 1-2학년의 경우, 문맥 속에 제시된 중의적 관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였고 초등 고학년에 접어드는 시기인 3-4학년이 되면 중의적 관용어를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 시기인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중의적 관용어 이해 차이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관용어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요인 외 다른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의 중의적 관용어 이해 검사는 문맥을 활용하여 관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제를 사용하였다. 맥락은 관용구 이해를 촉진하고, 이야기 장면 속에서 제시된 관용구가 학생들의 의미판단을 촉진한다(Qulalls & O'Brien, 2003). 따라서 맥락을 제시한 경우와 맥락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년별 초등학생의 중의적 관용어 이해 능력 측정 시 문맥 제시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Cain, K. · Towse, A. S. & Knight, R. S.(2009). The development of idiom comprehension: An investigation of semantic and contextual processing skill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02, 280~298.
- Cain, K. & Towse, A. S.(2008). To get hold of the wrong end of the stick: Reasons for poor idiom understanding in children with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1, 1538~1549.
- Choi, Kyoung-Bong(1992). A study of idioms in Korea (Ma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Choi, Kyoung-Bong(2014). Korean idiom dictionary. Seoul: Iljogak.
- Choi, Song-A & Hong, Kyoung-Hun(2012). Assessing the Idiom Comprehension Abilities of 5th and 6th Grad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1(3), 167~187.
- Han, Se-Kyoung(2004). A Study on the instruction of idioms under elementary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Hyun, He-Suk · Kim, Young-Tae & Im, Dong-Sun (2011). Comparison of Idiom Comprehension Ability of School-aged Poor reading comprehenders and typical developing preers: the role of Context, Transparency and Familiarity.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6(1), 173~195.
- Ioannis, V. & Olga, Z.(2011). Idiom understanding in people with Asperger syndrome/high functioning autism. *Revista da Sociedade Brasileira de Fonoaudiologia*, 14(4), 390~395.
- Kang, Wui-Gyu(1990). A Study on Korean Idioms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Kim, Jeong-Jin & Choi, Kyoung-Suk(1996).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Emotional and Cognitive Perspective-taking Ability.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17(2), 121~139.
- Kim, Mi-Jung(2012). Familiarity and Comprehension Ability of Idiom in 3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oshin University, Pusan.

- Kim, Young-Tae et al.(2009).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VT).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Kurdek, L. A. & Rodgon, M. M.(1975). Perceptual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taking in kindergarten through sixth grad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43~650.
- Kwon, Mi-Rim & Hong, Kyoung-Woon(2012). The Comprehension of Metaphors and Similes by Multicultu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1(4), 87~105.
- Lee, Da-Hee et al.(2014). Characteristics of Idiom's Comprehension in School-aged Children with Asperger's Syndrome.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3(3), 105~112.
- Lee, Jin-Suk & Park, So-Young(2010). Influence of Familiarity for Idiom, Gender Difference, Academic Achievement on the Abilities of Idiom Comprehension. *Korea Contents*, 10, 466~476.
- Levorato, M. C. & Cacciari, C.(1995). The effects of different tasks on th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idioms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0, 261~283.
- _____.(1999). Idiom comprehension in children: Are the effects of semantic analysability and context separable?. *European Journal of Cognitive Psychology*, 11, 52~66.
- Moon, Kuem-Hyun(1999). The study of Korean idiomatic expression. *Korean Linguistics* 34, Seoul: Taehaksa.
- Moon, Kuem-Hyun(2003). The characteristics of Colloquial Idiomatic Experssions. *Language*, 25(1), 51~71.
- Nippold, M. & Duthie, J. K.(2003). Mental imagery and idiom comprehension: A comparison of school-age children and adul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6, 788~799.
- Nippold, M., & Martain, S. A.(1989). Idioms interpretation in isolation versus context: A developmental study with adolescen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2, 59~66.
- Nippold, M., & Taylor, C.(2002). Judgements of idiom familiarity and transparency: A comparis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5, 384~391.
- Pae, So-Young et al.(2000). Test of Problem solving: TOPS.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Pae, Suk-Jin(2011). The effects of Referential Communication Training on Perspective Taking Ability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aster's thesis).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 Quallas, C. & O'Brien, R.(2003). Contextual variation, familiarity, academic literacy and rural adolescents' idiom knowledge.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4, 69~79.
- Shin, Hoo-Nam & Hong, Ju-Hyun(2012). The ability of comprehension idioms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6(2), 125~137.
- Sourn-Bissaoui, S. · Caillies, S. · Bernard, S. · Deleau, M., & Brule, L.(2012). Children's understanding of ambiguous idioms and conversational perspective-tak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2, 437~451.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999). *Korean Standard Dictionary*. Seoul: Dusandong.
- Woo, Yun-Jung et al.(2012). Comparison of Figurative Language Comprehension between the Children from North Korea and the Ordinary South Korea Childr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1(3), 383~402.
- Yeo, Eun-Young & Kim, Hwa-Su(2013). Features of North Korean Teen-age Refugees' Understanding of Idioms.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al*. 3(1), 94~117.

-
- Received : 27 July, 2015
 - Revised : 14 September, 2015
 - Accepted : 26 September, 2015